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

- 『논어(論語)』와 유자(儒者)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

윤인현**

|| 차례 ||

- I. 서론(序論)
- II. 『논어』를 통해 살펴본 효·정직·소통의 인간상
- III. 유자(儒者)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본 인성을 갖춘 인간상
- IV. 휴먼터치(Human Touch)가 필요한 시대 감성을 갖춘 인간상
- V. 결론(結論)

【국문초록】

본고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을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모든 것이 인공지능(AI)의 발달로 대면보다는 비대면으로 전개될 사회에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어떤 인간상이 필요하고 왜 그런 인간상인가를 살펴보고자 했던 것이다.

인공지능 시대의 필요한 인간상을 『논어』 중 인성 교육에 관한 내용을 살피고, 전통의 계승 차원에서 선인들의 글과 몇몇 유자들의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계승과 활용 방안에서는 전통의 계승과 변용을 통해, 4차 산업 산업혁명 시기에 인성과 감성을 갖춘 사람이 왜 필요한가를 논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인공지능의 시대로 이익과 편리함만을 목적으로 삼기

* 이 논문은 인하대학교의 지원에 의해서 연구되었음

** 인하대학교 프린티어학부대학(겸 항공우주공학과)조교수

에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가치들이 더 빛을 발할 수 있는 시기일 수 있다. 그래서 인성교육법에 포함된 예와 효, 정직과 소통, 그리고 공감의 차원에서 미래의 인간상을 예견해 본 것이다. 살펴본 결과 공교롭게도 인공지능에 주력하면 할수록 감성적 측면인 휴먼터치(Human Touch)를 그리워한다는 것이다. 이미 진행 중인 감성 경영이 이를 뒷받침하였다. 따라서 미래 사회에서도 전통적으로 계승 발전 시켜온 인간 고유의 영역이라고 할 인성과 감성 교육을 강화하여 인류 행복과 문화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 인공지능(AI) · 비대면 ·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 · 논어 · 유자 · 인성 · 감성.

1. 서론(序論)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말 그대로, 혁명의 시대이다.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하지 못한 인공지능(AI) · 사물인터넷(IoT) · 빅데이터(Big Data) · 머신러닝(Machine Learning) 등 대표적인 기술이 우리들이 사는 세상을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어느 분야 최고의 고수 중의 한 명이었던 전문가가 인공지능에 의해 처참하게 패배(敗北)하는 것을 우리는 텔레비전 화면으로 지켜보았다. 그리고 사물인터넷의 물리적 편리함을 넘어 사업의 기초 자료 조사도 빅데이터를 이용해 사업장을 물색하고 고객의 선호도까지 탐색하는 시대이다. 이런 데이터 분석을 넘어 이제는 축적된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를 이용해 미래를 예측하는 기술인 머신러닝의 시대로 접어들었다. 미래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딥러닝(Deep Learning) 시대 곧 사람이 가르치지 않아도 컴퓨터가 스스로 학습하여, 미래를 예측하는 시대가 온다.

4차 산업혁명의 청사진은 우리의 삶을 편리하면서도 물질적으로 풍족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인공지능에 의해 일자리가 줄어들어 소득 격차에 따른 계층이 형성되고, 노령화는 가속화 되어 생산 가능 인구가 급속도로 줄어드는 인구절벽의 시대를 맞이할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효율성과 이윤의 극대화로 인해 인간의 가치가 훼손될 수도 있다. 따라서 장·단점이 공존하는 미래의 삶은 인공지능에 의존하면서도 인간적 공감과 스킨십에 대한 목마름은 강해질 수 있다. 이미 여러 분야에서 그런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이런 불확실하고 불균형적인 미래가 펼쳐질 앞날에 필요한 인간상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본고는, 선대의 성현들이 남긴 경서(經書)를 비롯한 명저(名著)와 지금의 추세를 통해,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 미래에 필요한 인간상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ICT(정보통신기술) 리터러시 곧 정보기기·모바일기기 등을 능숙하게 다룰 줄 아는 인재상을 더 많이 필요로 할 것이다. 또한 기술의 변화에 민감해야 됨으로 새로운 기술에 대한 거부감 없이 적응해 나가는 인재도 필요할 것이다. 이런 인재들은 기기와 문명의 발달로, 네트워킹 없이도 혼자서 물질적 풍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회지만, 그로인해 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사회성 부족과 폐쇄성으로 인한 생각의 확장 부족 등의 부작용도 예상된다. 이와 같이 예견되는 현상으로 인해, 4차 산업혁명이 전개될수록 배금주의(拜金主義) 사고와 개인주의는 팽배해지고 인간관계의 단절에서 오는 예의의 실종과 소통의 부재는 심화될 것이다. 모든 판단의 기준이 자본과 편리로 귀결되기 때문이다. 편리함을 앞세운 자본은 더욱더 물질적 풍족함에 매여 인간만이 지닐 수 있는 본연의 정서인 배려하는 마음과 상부상조(相扶相助)의 미풍양속(美風良俗)은 사라지게 할 뿐만 아니라 물질 우

선주의에 사람을 사로잡히게 만들 것이다. 더 나아가 타인이나 동료와의 경쟁은 더 격렬해져 서로를 성장의 상대가 아니라 경쟁의 대상으로만 생각하게 만들 것이다.

이런 시대를 살게 될 미래 세대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떤 모습을 지녀야 할까? 이런 폐쇄적이고 개인주의가 만연한 미래 사회일수록 인간 고유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인간 고유의 역량 중의 하나가 인성(人性)일 것이다. 인성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착한 본성(으로), 누구나 지니는 사단(四端) 곧 인(仁)에서 우리나라오는 측은지심(惻隱之心), 의(義)에서 우리나라오는 수오지심(羞惡之心), 예(禮)에서 우리나라오는 사양지심(辭讓之心), 지(智)에서 우리나라오는 시비지심(是非之心) 등이다. 따라서 기기와 기술의 발달로 개인의 고립화가 심화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히려 타고난 본성인 착한 성품이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만 사람으로서의 참된 삶도 실현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착한 본성에 첨단 기술로 무장한 인재는 우리 사회를 더욱 빛나게 할 것이다.

진정한 4차 산업혁명을 꿈꾼다면 인간이 지녔던 본성이 무가치하게 버려지기 전에 타고난 착한 본성인 인성부터 되살려야 할 것이다. 이성적 차원인 인성이 무너진 시대에 인성으로 바로잡아야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4차 산업혁명이라는 문명의 절정기에

1) 인성은 하늘로부터 타고난 본성이다. 그래서 맹자도 성선설을 주장하였으며, 순자도 교육의 목적이 타고난 본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래서 순자는 자기 내부에 가지고 있는 반사회적인 본능인 욕구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으로 교육을 강조하였다. 마치 밭에 씨앗을 뿌리면 잡초가 먼저 나듯이 우리도 교육을 받지 않으면 마음속에 있는 본능적인 욕구인 이득을 좋아하게 되고 눈과 귀는 아름다운 소리나 색깔을 좋아하게 되어 나쁜 심성이 싹 틔울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욕구를 제거하기 위해 공부를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그러면 착한 본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 것이다. 맹자와 순자의 주장처럼 인성 교육은 타고난 착한 본성을 되찾는 과정의 일환인 것이다.

우리 인류에게 필요한 것은 역설적이게도 인성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유이다. 고도로 발달된 과학기술은 한 명의 이탈자만 나와도 인류를 파멸로 몰아넣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첨단 과학 문명으로 무장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학자는 물론 모든 지식인의 바른 지식 활용을 위해서라도 인성 교육은 필요하다. 아울러 기기의 발달로 이룩된 문명사회에서 문명의 기기가 할 수 없는 감성 부분의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인공지능으로 무장되는 현재의 사회에서 벌써 인간의 따뜻한 정이 필요하다는 징조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2015년 7월 21일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 확정되었다. 정부는 ‘건전하고 올바른 인성을 갖춘 국민을 육성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취지하에, 효(孝)·예(禮)·정직·책임·존중·배려·소통·협동이라는 8대 핵심 가치를 교육의 목표로 정하였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이 8대 가치에 부합하는 교육을 실시하여 인성을 갖춘 인재 양성은 유효하다. 본고도 8대 핵심 가치를 염두에 두고 인성교육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을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중시되어 온 인성에 관한 내용이 시대적 조류(潮流)라 할 8대 핵심 가치에 포함되었기에, 시대상의 반영과 변함없이 중시해야 할 인간 본연의 가치를 강조한다는 의미에서 8대 핵심가치 중에서도 특히 미래사회 곧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성과 인간미에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런 시대적 배경과 정부 정책을 반영하여 지금까지 인성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학 교양에서의 고전활용²⁾과 『논어』에 기반 한 인성교육

2) 함정현·민정현,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활용에 대한 연구」(한국·일본·미국 대학의 교양 고전 교육 사례 비교), 동방학30, 2014, pp.483-509.

모델 개발³⁾ 그리고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서의 인성교육 방향과 활용 방안 및 활성화 등⁴⁾ 대학의 교육 과정 안에서 인성 교육의 방법을 제시

-
- 3) 金東敏, 「논어에 기반 한 인성교육 모델의 이론적 기초」, 유교사상문화연구71, 2018, pp.81-116.
- 4) 손운락, 「대학 교양과목으로서의 시민 인성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pp.174-178.
- 김영준·강경숙, 「대학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기반 구축방안」, 교사교육연구57, 2018, pp.411-428.
- 김은주,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 E대학을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5, May. 2019, pp.247-258.
- 홍경남, 「대학 인성 교육과 도덕윤리 교육」. 교양교육연구, 11(6), 2017, pp.507-528.
- 정미선·정영애·김민순, 「외국의 인성교육 고찰을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 방향」, 교정상담연구 제2권 제2호, 2017, pp.95-128.
- 이하준·이서인, 「인문학을 활용한 대학의 인성교육과정 분석과 개선방향」, 교양교육연구, 9(4), 2015, pp.45-72.
- 차봉준, 「대학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과 활성화를 위한 시론-S대학 인성교과목 개설을 중심으로」, 대동철학72, 2015, pp.23-45.
- 성명희·김은주,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과정 개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pp.429-436.
- 이은아, 「인성교육의 대안과 방향」, 사회과학연구, 26(4), 2015, pp.235-255.
- 이하준,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8(5), 2014, pp.423-448.
- 강민경,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인성교육 사례」.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pp.111-119.
- 윤옥한, 「최근 인성교육의 연구동향과 인성교육 방향」.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pp.129-138.
- 안현효, 「고전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pp.143-158.
- 지희진,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7(5), 2013, pp.433-466.
- 안순태, 「대학 교양한문 교육과 인성교육-論語 세미나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韓國漢文教育學會48호, 漢文教育研究, 2017, pp.95-120.

한 연구들이 있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불확실성을 전제로 유아기에 알맞은 교육 과정을 살피면서 예전에 행해오던 대로 놀이와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면 된다고 한 연구⁵⁾도 있었으며, 초등학교 교육 정책은 문해 능력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경제에 대한 기본적인 능력을 강화해야 할 것을 주장하면서 인성과 관련하여서는 중·고등학교의 교육 방향은 대학입시 교육에서 벗어나 시민적 책무성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한 연구 논문⁶⁾도 있었다. 대체로 제도 개선과 교육 내용 선정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면서 어느 한 특정 시기의 교육을 강조한 연구 논문들이었다.

본고는 기존 연구에서 강조한 교육제도의 개선과 어느 한 시기의 중점적인 교육이 아니라, 전일교육제로 인성과 감성 교육이 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가를 살펴보고자 한 것이다. 그래서 사서(四書)⁷⁾ 중에서도 공자의 말씀 위주로 편찬된 『논어』에서 인성교육의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전통의 계승 차원에서 선인들의 글과 몇몇 유자(儒者)들의 인성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을 살펴 볼 것이다. 그리고 계승과 활용 방안을 살피면서 ‘미래는 인성과 감성을 갖춘 구성원이 왜 필요한가?’를 논할 것이다.

박현희,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 활용 강좌의 운영 특성과 효과 - 서울대 <독서세미나 - 고전에 길을 묻다>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pp.281-299.

신창호, 「인성교육과 교육학적 전망 - 교육의 본질적 개념을 고려하여」,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2019, pp.244-270.

5) 김충일·김호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과 누리과정 목표와의 연관성」, 『열린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2018, pp.79-94.

6) 성태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교육학연구』 제55권 제2호, 2017, pp.1-21.

7) 『論語』·『大學』·『中庸』·『孟子』

II. 『논어』를 통해 살펴본 효·정직·소통의 인간상

『논어』는 공자의 언행과 그 제자들과의 문답을, 제자의 제자들이 편찬한 유가의 경전으로, 20편 499장 12,700자로 구성된 책이다. 편찬자에 대해서 정자(程子)는 “유자(有子)와 증자(曾子)의 문인에서 이루어졌다.”⁸⁾라고 하면서 ‘유독 그 두 분에게만 존칭인 ’자(子)’를 붙였다⁹⁾고 하였다. 이때의 ‘자(子)’는 ‘선생님 자’로 도덕적이고 학문적으로 높은 분에게 붙일 수 있는 존칭의 접미사이다. 특히 공자의 제자인 유약(有若)은 증삼(曾參)보다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제자인데, 존경의 뜻으로 ‘자’를 붙인 것은 유약의 제자들이 그 스승을 높이기 위해 의도적으로 ‘자’를 붙였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정자(程子)는 유약과 증삼 계통의 제자들이 『논어』 편찬에 참여했다고 한 것이다. 여기서는 인성교육과 관련 있는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인성 덕목의 8대 핵심 가치 중 우선일 수 있는 효(孝)에 대해서, 공자께서 어떻게 가르침을 베풀었는지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

맹의자가 ‘효’에 대하여 물었는데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예를) 어김이 없는 것이니라.”고 하셨다.¹⁰⁾라고 하였으며, 노나라 대부 맹의자의 아들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여쭙자 “부모는 오직 그 병을 근심하시느니라.”¹¹⁾라고 하였으며, 공자의 제자 자유에게는 “오늘날의 ‘효’는 그 바로 (그저) 잘 봉양하는 것을 이르는 말이니, 견마(犬馬)에 이르러서도 모두 능히 길러줌이 있으니, 공경하지 않는다면 (개나 말을 기르는 것

8) 『論語』 「序說」 “成於有子曾子之門人.”

9) 『論語』 「序說」 “其書獨二子以子稱.”

10) 『論語』 「爲政」篇 ‘無違’章 “孟懿子가 問孝한대 子曰, 無違니라.”

11) 『論語』 「爲政」篇 ‘憂疾’章 “父母는 唯其疾之憂시니라.”

과) 무엇으로써 구별하리오.”¹²⁾라고 하였으며, 제자 자하에게는 “얼굴 빛을 가지기가 어려우니, 일이 있거든 아우나 자식 된 사람이 그 수고로움을 맡아서 행하며 술과 밥이 있거든 먼저 나신 분께 대접하는 것, 일찍이 이로써 ‘효’를 삼겠는가?”¹³⁾라고 하였다.

이는 인인시교(因人施教)의 가르침으로, 교육받는 사람의 능력과 처지에 따라 그 방법을 달리 하는 교육법이다. 노나라 대부 중손씨인 맹의자가 효를 여쭈었을 때 공자의 가르침은 예에 어긋남이 없게 하라고 하였다. 이때 노나라 맹손씨 자신을 비롯하여 세 집안인 중손씨와 계손씨가 노나라 임금을 업신여기며 도리에 어긋나는 짓을 하였으므로 그 사람됨에 말미암아 가르침을 내린 것이다. 그리고 맹의자의 아들 맹무백이 효에 대해서 여쭙자, 허약체질인 맹무백에 대해 공자께서 건강관리를 당부하였다. 부모님의 기와 체를 받아 태어난 몸이기에 자기 자신의 몸 관리를 잘 하는 것이 효도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것이다. 세상의 자식 가진 부모는 오직 자기 자식이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바랄 것이다. 그래서 내 스스로 내몸의 건강을 지켜 부모님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것이 첫 번째 효도일 것이다. 맹무백이 건강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제자 자유에게는 물질로만 공양할 것이 아니라 공경하는 마음까지도 지닐 것을 당부하였다. 공경함이 없다면 개와 말을 기르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제자 자하에게는 온화한 얼굴빛을 가지고 섬겨야 부모님이 불편해하지 않음을 이르신 것이다.

공자께서 가르침을 내린 효도의 방법은 재질의 높고 낮음에 따라 그

12) 『論語』「爲政」篇 ‘能養’章 “今之孝者是 是謂能養이니 至於犬馬하여도 皆能有養이니 不敬이면 何以別乎리오.”

13) 『論語』「爲政」篇 ‘色難’章 “色이 難이니 有事어든 弟子가 服其勞하고 有酒食어든 先生饌이 曾是以爲孝乎야.”

모자라는 점을 인정해 주신 것이다. 도리에 어긋난 것을 한 맹의자에게는 일반 대중들에게 당부하여 일러 주신 뜻으로 도리에 어긋남이 없게 행하는 것이 효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어린 아들 맹무백에게는 평상시 부모님께서 근심할 만한 것으로 깨우침을 내렸다. 몸이 허약한 어린 자녀들에 대한 부모님의 근심은 끝이 없기에 평상시 잘 먹고 건강을 유지하기를 당부한 것이다. 문학에 능한 제자 자유와 자하는 능히 봉양하기는 하되 간혹 공경심과 온화한 기색이 부족하였다. 그래서 그 모자란 부분을 허여하여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게 하였다. 그 가르침을 받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 달랐던 인인시교의 교육 방법으로 맞춤 교육을 행하였다. 이런 교육을 받은 제자들은 반드시 훌륭한 인성을 지닌 사람으로 거듭날 것이다. 자신에게 부족한 부분을 더해 주어 발전된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와 같은 맞춤식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양화되고 다변화되는 세상에 그 사람에게 딱 들어맞는 교육법과 시대가 요구하는 인간상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편리함만을 내세워 물질적 효도가 전부인 양 요양원이나 양로원 등지로 모시는데, 그곳으로 모시기 전에 부모님의 뜻을 헤아려 보는 것이 더 큰 효도일 수 있다. 그리고 복지관에서 보내는 AI가 반복적으로 들려주는 안내 음성 정보보다 사람의 따뜻한 감성적인 말 한 마디가 듣는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 지금도 돈 때문에 부모 자식 간의 천륜이 어긋나는 것을 보면, 대부분 물질로 판단될 21세기는 효심을 갖춘 사람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공자가 행한 인인시교의 교육법에 따라 현대인 각자에게 맞는 효도의 방법을 알려줄 필요가 있다. 그러면 획일화되고 단절화된 사회에 인간미 넘치는 사회가 되는데 일조하게 될 것이다.

정직에 대해서도 알아보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유(由)야, 너에게 ‘얹’에 대하여 가르쳐 줄까 보다.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 그 바로 아는 것이니라.”고 하셨다.¹⁴⁾

유(由)는 공자의 제자 자로(子路)이다. 자로는 용맹을 좋아하여 대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억지를 써서 아는 것처럼 행하는 경향이 있었다. 그래서 공자께서 ‘알면 안다’고 하고, ‘모르면 모른다.’ 하라고 일러주신 말씀이다. 이처럼 하면 혹시 능히 알지 못하더라도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일은 없을 것이라는 말이다. 지금도 스마트폰 세상에 떠돌아다니면서 세상을 혼란하게 만드는 가짜 뉴스가 사회적 문제가 되는데, 그 기기가 발달된 21세기 미래는 더욱 기성을 부릴 확률이 높다. 이런 시대 일수록 정직한 인간이 주류가 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서 신의(信義)가 없으면, 그를 (그레도) 될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큰 수레가 수레횡목이 없으며 작은 수레가 수레갈고리가 없으면, 그 무엇으로써 가겠는가?”라고 하셨다.¹⁵⁾

사람이 신의(信義) 곧 믿음과 의리가 없으면 마치 큰 수레는 수레횡목이 없는 것과 같고 작은 수레는 수레갈고리가 없는 것과 같다는 말이다. 수레에 수레횡목과 수레갈고리가 없으면 짐을 실을 수 없는 것처럼 사람에게 신의가 없다면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사

14) 『論語』「爲政」篇 ‘誨知’章 “子曰, 由야 誨女知之乎인저. 知之를 爲知之요 不知를 爲不知가 是知也니라.”

15) 『論語』「爲政」篇 ‘靚軌’章 “子曰, 人而無信이면 不知其可也케라. 大車가 無靚하며 小車가 無軌이면 其何以行之哉리오.”

람으로서의 존재 가치도 없다. 기술과 기기가 중심이 되는 사회일수록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정직해야 한다. 기술로 사람을 속일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도 보이스피싱의 범죄 중 일부가 발달된 기계로 정교하게 문서를 위조하여 수많은 사람을 속이고 있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미생고(微生高)를 ‘꼬장뱅이(곧기만 한 사람)’라 이르던가? 어떤 사람이 젓국을 빌리러 왔거늘, 그 이웃에서 빌려다가 주었다더구나.”라고 하셨다.¹⁶⁾

공자께서 노나라 미생고의 융통성을 칭찬한 말씀이다. 어떤 이웃이 곧기만 한 사람으로 소문난 미생고 집에 젓국을 빌리러 왔는데, 마침 미생고의 집에도 떨어지고 없었다. 그래서 어려운 처지를 생각하여 이웃집에서 젓국을 빌려다가 주었다는 것이다. 따라서 공자는 소문처럼 미생고가 곧기만 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다. 남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해서 스스로 그 어려움을 타계하는 것이 정직한 사람의 한 면모이기 때문이다. 성인(聖人)은 남의 약점을 감춰주고 그 장점을 널리 알리는 데 그 글의 의미를 두었기에, 주자(朱子)가 말한 것처럼 자기의 뜻을 굽히고 외물에 따라서 저자거리에 떠도는 꼬장뱅이가 은혜를 베풀었다는 소문을 끌어다가 자기의 명성을 소문내기 위한 것은 아닐 것이다. 주자의 견해처럼 정자와 범씨의 주석에서도 정직함을 해치는 일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인인 공자께서 남의 잘못을 들춰내기 위해 한 말씀이 아닐 것이다. 저자거리의 소문처럼 꼬장뱅이인 줄로만 알았던 미생고가 융통성이 있어 남다른 친분이 있던 이웃집에 가서 젓

16) 『論語』「公治長」篇 ‘乞醢’章 “子曰，孰謂微生高直也。或乞醢焉，而與之，而與之，而與之。”

국을 빌려 어려운 사정을 들어준 것은 권장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다. ‘동병상련(同病相憐)’처럼 어려운 살림에 남의 어려운 점을 헤아릴 줄 알아야 함을 가르치면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융통성을 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교훈을 준 것이다. 따라서 주자가 집주(集註)에서 ‘뜻을 굽혀 남의 비위를 맞추고 아름다움을 빼앗아 생색을 냈으니, 정직함이 될 수 없다’¹⁷⁾고, 주석한 것은 맞지 않다. 모든 것이 기계화되어 기계적으로 재단될 미래 사회에는 남의 어려운 사정을 배려할 줄 아는 미생고 같이 융통성 있는 인간상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예견된다. 이는 인간미를 지닌 인간상일 수 있기 때문이다.

나라에 도(道)가 있는데 가난하고 또 천하게 지내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며, 나라에 도가 없는데 부자가 되고 귀한 존재가 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다.¹⁸⁾

나라에 도(道)가 있는데 세상에 쓰일 수 있는 도가 그에게 없어 출사(出仕)하지 못하고 천(賤)하게 살아간다면 부끄러운 일인 것이다. 반대로 세상에 도가 행하지 않는데 처신을 조심하지 않고 아무 때나 출사하려고 하는 것도 부끄러워할 점이 심하게 있다는 것이다. 일제 치하 때 일제의 앞잡이 노릇을 한 친일 세력이나 군사 정권 시절 하수인 노릇하면 호의호식한 집권자들은 정직함을 숨기고 권세와 부귀를 누린 바가 된다. 무엇을 중시하고 어떤 시절에 벼슬길에 나아가고 물러나야 하는가를 살필 수 있게 하는 글이다.

17) 『論語』「公治長」篇 ‘乞糶’章 朱子集註 “譏其曲意徇物하고 掠美市恩하여 不得爲直也라.”

18) 『論語』「泰伯」篇 ‘篤信’章 “邦有道에 貧且賤焉이 恥也며 邦無道에 富且貴焉이 恥也니라.”

그러면 어떤 사람이 출사하여야 할까? 공자는 “곧은 사람을 들어서 굽은 사람 위에 앉혀 놓으면, 능히 굽은 사람으로 하여금 곧아지게 하느니라.”¹⁹⁾고 하셨다. 이는 공자의 제자 번지가 지혜에 대해서 여쭙는 그에게 대한 답변에서 나온 말이다.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굽은 자 위에 앉혀 놓는 것은 지혜에 해당되고 굽은 자들로 하여금 정직하게 되는 것은 어짊에 해당된다. 따라서 어진 사람을 알아보고 들어 쓸 줄 아는 것은 지혜에 해당되는 동시에 어짊의 실현인 것이다. 번지는 공자께서 베풀어주신 말씀의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해, 동문 자하에게 다시 물으니, 자하가 “거룩하시도다, 말씀이여. 순 임금(舜)이 천하를 차지하심에 대중 가운데서 가려서 ‘고요(皐陶)’를 거용(擧用)하시니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졌고, 탕 임금(湯)이 천하를 차지하심에 대중 가운데서 가려서 ‘이윤(伊尹)’을 거용하시니 어질지 못한 자들이 멀어졌느니라.”²⁰⁾고 하였다. 이는 순 임금과 탕 임금이 대중 가운데서 고요와 이윤 같은 정직한 사람을 들어서 쓸 줄 알 만큼 지혜로워서 마침내 인(仁)의 경지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처럼 정직한 사람을 알아보는 안목을 지닌 것은 인의 경지에 이른 성인(聖人)의 경지라 할 만하다. 모든 것이 기계적으로 재단될 수 있는 미래는 사람됨을 알아볼 수 있는 안목이 있는 인재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특히 21세기 언택트(untact) 시대가 확산될 조짐이 있는 미래는 정직한 사람을 알아보고 거용할 줄 아는 지도자가 필요한 시대이다. 비대면으로 정직한 사람을 구별하기도 어려운 시대이기 때문이다.

공자는 정직의 개념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19) 『論語』「顔淵」篇 ‘仁知’章 “舉直錯諸枉이면 能使枉者(로) 直이니라.”

20) 위의 책 “富哉라 言乎여. 舜有天下에 選於衆하사 舉皐陶하시니 不仁者가 遠矣요 湯有天下에 選於衆하사 舉伊尹하시니 不仁者가 遠矣니라.”

섭공이 공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우리 고을에 곧은 체하는 사람 ‘궁’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아버가 (남의) 양을 훔쳐거늘, 아들이 증인을 썼습니다.”라고 하였다.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고을의 정직한 사람은 그와는 다르니, 아버가 자식을 위해 숨겨 주며 자식이 아버를 위해 숨겨 주나니, 곧은 것이 그 가운데에 있습니다.”라고 하셨다.²¹⁾

섭공이라는 지방관이 자기 고장의 정직한 자 궁을 사랑하는 장면이다. 궁의 아버지가 남의 집 양을 훔치자 그 정직한 아들이 그 아버지를 고발했다는 것이다. 그러자 공자께서 우리 고을에 정직한 사람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숨겨 주는 것으로, 그 정직함이 그 안에 있다고 했다. 부자지간은 천륜이기에 설령 부끄러운 일이 있어도 증거를 묻지 않는 것이다. 바르지 않는 가운데 바름이 있는 것으로, 천륜지간 곧 부자의 정을 돈독히 해줌으로써 그 안에 바름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자와 주자도 아버지와 자식이 서로 숨겨줌에 천리와 인정이 지극히 당연하다고 했던 것이다. 따라서 억지로 정직을 구하지 않아도 정직함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다. 『맹자』 「진심」장(상)에, 도응이 맹자에게 묻기를, ‘순 임금께서 천자로 있을 때 아버지 고수가 사람을 죽였다면 사법의 책임자로 있는 고요가 어떻게 했겠습니까?’로 물으니, 맹자는 ‘고요는 고수를 체포하려 할 것이요, 순 임금께서는 천자의 자리를 버리고 아버지 고수를 업고 몰래 도망하였을 것이다.’라고 대답하는 장면이 있다. 이를 사씨는 주석에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따질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하였다. 무엇이 정직함인지 공자와 맹자가 잘 알려주고 있다. 부자간의 천륜을 지극히

21) 『論語』 「子路」篇 ‘直躬’章 “葉公이 語孔子曰, 吾黨에 有直躬者하니 其父가 攘羊이 어늘 而子가 證之하니이다. 孔子가 曰, 吾黨之直者는 異於是하니 父爲子隱하며 子爲父隱하니니 直在其中矣니라.”

하는 가운데 바름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성을 갖추게 되면 무엇이 바른 길로 나가는 것인지 저절로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미래 사회는 개인주의와 기기의 발달로 언택트(untact)가 만연해질 것이다. 이런 시대에 원활한 소통은 중요한 덕목이 될 것이다.

공자가 남과의 소통 시 우선한 것은 무엇일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않겠는가? 벗이 먼 곳으로부터 찾아오면, 또한 즐겁지 않겠는가? 남이 알아주지 않아도 안타까워하지 않으면, 또한 군자답지 않겠는가?”라고 하셨다.²²⁾

위의 글은 『논어』 첫 편으로 『논어』의 3대 강령에 해당된다. ① 학문·② 교우·③ 수양 등으로, 수양 부분인 “인부지이불온(人不知而不慍)이면 불역군자호(不亦君子乎)야.”가 타인과의 소통과 관련이 있다. 여기서 공자는 내가 같고 닮으며 힘써 노력하는데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는 것은, 대개 남들이 알아줄 만큼 내가 아직도 훌륭하지 못한 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내가 훌륭한데도 남들의 이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나를 알아줄 만한 세상이 되지 못하여 알아주지 않는 경우도 없지 않겠으나, 남들이 나를 몰라서 알아주지 못하는 것이야 나로서는 어찌할 방법이 없다. 그러기에 진정으로 군자를 추구해 나가는 사람이라면,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알아주기만을 바랄 것이 아니라, 남이 알아줄 만한 실력을 갖추도록 내 자신을 같고 닮으며 더욱 힘써 노력하는 삶의 자세를 지니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논어』 「학이(學而)」편 ‘불환(不患)’장에 “남이 자기를 알아

22) 『論語』 「學而」篇 ‘時習’章 “子曰, 學而時習之면 不亦說乎야. 有朋이 自遠方來면 不亦樂乎야. 人不知而不慍이면 不亦君子乎야.”

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내 자신이 남을 알아주지 못하는 것을 근심하느니라.”²³⁾라고 하였으며, 『논어』 「이인(里仁)」편 ‘입위(立位)’장에도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무슨 방법으로 그런 자리에 설 수 있는지 설 수 있는 방법을 근심하며,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말고 알아줄 만한 일을 할 것을 구해야 하느니라.”²⁴⁾했다. 그리고 『논어』 「헌문(憲問)」편 ‘환인(患人)’장에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근심하지 않고, 제 능하지 못한 것을 근심하느니라.”²⁵⁾가 있고, 『논어』 「위령공(衛靈公)」편 ‘무능(無能)’장에 “군자는 자기에게 능력이 없는 것을 마음의 병으로 여기고, 남이 자기를 알아주지 않는 것을 병으로 여기지 않느니라.”²⁶⁾고 하였다. 모두 남을 탓하거나 세상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문제로 돌렸다. 자기 자신이 능력이나 재주가 없어서 남이 몰라주는 것이야 어쩔 도리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이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고 소통을 원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마땅히 세상에 도움이 될 만한 능력이나 재주를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타인을 탓하기 전에 자신의 실력부터 갈고 닦으며 노력해야 할 것을 당부하였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에 나아가 참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자기 자신을 갈고 닦아 실력을 쌓음으로써 마침내 스스로 어떤 지위에 오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고 자기에게 지위가 없는 것을 근심하거나 탓하지 말고 남들이 자연히 알아줄 만한 참된 일을 하는 것이 급선무이며, 어떤 지위나 명성을 얻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는 것을 근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23) 『論語』 「學而」篇 ‘不患’章 “不患人之不己知요 患不知人也니라.”

24) 『論語』 「里仁」篇 ‘立位’章 “不患無位요 患所以立하며 不患莫己知요 求爲可知也니라.”

25) 『論語』 「憲問」篇 ‘患人’章 “不患人之不己知요 患其不能也니라.”

26) 『論語』 「衛靈公」篇 ‘無能’章 “君子는 病無能焉이요 不病人之不己知也니라.”

는 것이다. 결국 이 세상과의 소통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다.

그러면 남을 대하는 태도는 어떻게 해야 할까?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말씀을 공교롭게 하고 얼굴빛을 곱게 가지는 사람이 드무니라, 어진 사람이.>라고 하셨다.”²⁷⁾라는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마땅히 외면적인 겉꾸밈에만 치중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깊이 삼가야 한다. 겉꾸밈으로 현혹적인 말을 앞세우기보다는 진심이 담긴 행동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물질문명이 발달할수록 타인과의 직접적인 교류보다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의 기기에 의존하는 간접적 교류 곧 언택트가 활발해질 것이다. 이런 특성으로 인해, 기계의 화면에 비치는 모습으로 타인을 판단하는 기준은 자연히 겉꾸밈이 될 수 있다. 그렇지 않아도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세상이다. 이런 시대적 특성이 두드러지는 시대일수록 인간 개인의 고유 영역인 인성으로, 책임감을 지니고 협동하면서 존중까지 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타고난 인성 곧 착한 본성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과 교류한다면 자칫 삭막할 수 있는 시대적 분위기에 오아시스를 만나는 격이 되어 소통도 수월해질 것이다.

21세기는 모든 판단의 기준이 기기에 의존하여 확률적으로 높은 쪽으로 선택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때이다. 이런 시대의 가치 기준이 적용될수록 인간 고유의 정서인 효와 정직 또한 아울러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한 정당한 이유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언택트 시대에 소통의 방법 또한 정직을 바탕으로 자기 자신의 실력부터 갖추어야 한다. 남을 닦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는 실력을 갖추고 있다면 세상과의 소통도 원만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27) 『論語』 「學而」篇 ‘鮮仁’章 “子曰, 巧言令色이 鮮矣仁이니라.”

III. 유자(儒者)의 가르침을 통해 살펴본 인성을 갖춘 인간상

『논어』를 비롯하여 유학의 경서를 탐독한 조선 시대 유자들의 인성에 대한 생각은 어떠했는지 인성교육과 관련지어 논의해 보고자 한다. 조선 시대 유자를 대표하는 퇴계(退溪) 이황(李滉 1502~1570)은 「도산십이곡발(陶山二十曲跋)」에서 도산서원 학동들의 인성을 위해 「도산십이곡」을 지었다고 하였다.

우리 동방의 가곡은 대체로 음란하고 시끄러워 죽히 말할 것이 못 된다. 이를테면 「한림별곡(翰林別曲)」과 같은 류(類)는 문인의 입에서 나왔으나, 호걸스러움을 자랑하여 방탕하며, 아울러 외설되고 거만하며 희롱하고 친압한 것으로, 더욱이 군자로서 마땅히 숭상할 바가 아니다. 오직 근세에 이별(李穡)의 「육가(六歌)」라는 것이 세상에 널리 전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이것[翰林別曲]보다 좋다고는 하나 또한 세상을 놀리는 불공(不恭)스런 뜻이 있고 온유둔후(溫柔敦厚)한 실속이 적은 것이 애석하다. 노인이 본디 음률을 알지 못하나, 오히려 세속의 음악을 듣기 싫어할 줄은 알아서, 한가히 지내며 병을 고치는 여가에 무릇 성정에 감동되는 것이 있으면 매양 시로 표현해내고는 한다. 그러나 오늘날의 시는 옛날의 시와는 달라서 가히 읊을 수는 있어도 노래할 수는 없다. 만약 노래할 수 있도록 하자면 반드시 시속(時俗)의 말[리어(俚語) : 우리말]로 엮어야 하니, 대개 나라 풍속의 음절이 그렇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일찍이 이씨의 노래를 대략 모방해 지어서 「도산육곡」을 만든 것이 둘이니, 그 하나는 뜻을 말한 것이요, 다른 하나는 학문을 말한 것으로, 아이들로 하여금 아침저녁으로 익혀 노래하게 하고 의자에 기대어 듣게 하며, 또한 아이들로 하여금 스스로 노래하며 스스로 춤추고 뛰게 하고자 함이거늘, 행여 비루하고 인색한 마음을 씻어내어 감발되고 (뻗힌 마음을) 녹여 통하게 한다면, 노래하는 자와 듣는 자가 서로 유익함이 없지 않을 것이다.²⁸⁾

28) 李滉, 「陶山十二曲跋」 “吾東方歌曲, 大抵多淫哇不足言, 如翰林別曲之類, 出於文

위의 내용에서 퇴계는 우리 동방에 예로부터 전해오는 노래로, 고려 시대의 「한림별곡」류와 같은 노래가 있는데, 내용이 ‘거만하고 퇴폐적이며 향락적이라 군자로서 숭상할 바가 못 된다.’고 하였다. 그리고 ‘근래의 이별의 「육가」가 있는데, 「한림별곡」보다는 좋다’고는 하지만, ‘세상을 등지는 내용으로 성품이 따스하고 부드러운 인정이 두텁고 두터운 면이 적어 애석하다.’고 하였다. 그래서 글 배우는 학동을 위해 이 「도산십이곡」을 지었는데, 학동들이 날마다 익혀 아침저녁으로 노래 부르게 함으로써 학문하는 즐거움도 깨닫게 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비루한 마음을 씻어내어 성정을 순화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하였다. 「도산십이곡」의 시조(時調) 한 수를 살펴보자.

순풍(淳風)이 죽다하니 진실(眞實)로 거죽마리
 인성(人性)이 어지다 하니 진실(眞實)로 올흔 말리
 천하(天下)에 허다 영재(許多英才)를 소겨 말씀홀가

「도산십이곡」 중 3번째 노래이다. ‘예부터 내려오는 순후한 풍습이 점차적으로 없어지고 사람의 성품이 악하다고 하니 이것은 참으로 거짓말이다. 인간의 성품은 본디부터 어질다고 하니 참으로 옳은 말이다. 그러므로 착한 성품으로 순후한 풍습을 이룰 수 있는 것을 그렇지 않다고 많은 영재를 속여서 말할 수 있을까?’ 이는 맹자의 성선설로, 세상의

人之口，而矜豪放蕩，兼以褻慢戲狎，尤非君子所宜尚，惟近世有李龜六歌者，世所盛傳，猶爲彼善於此，亦惜乎其有玩世不恭之意，而少溫柔敦厚之實也。老人素不解音律，而猶知厭聞世俗之樂，閑居養疾之餘，凡有感於情性者，每發於詩，然今之詩，異於古之詩，可詠而不可歌也，如欲歌之，必綴以俚俗之語，蓋國俗音節所不得不然也，故嘗略倣李歌而作，爲陶山六曲者二焉，其一言志，其二言學，欲使兒輩朝夕習而歌之，憑几而聽之，亦令兒輩自歌而自舞蹈之，庶幾可以蕩滌鄙吝，感發融通，而歌者與聽者，不能無交有益焉。”

많은 영재들에게 성선설의 옳음을 말하면서 순박하고 두터운 덕을 지닌 풍습을 강조하였다. 퇴계는 이처럼 착한 본성을 지닐 수 있도록 노래까지 지어 부르게 했다. 학동들이 이런 노래를 부르게 되면 부르는 사람뿐만 아니라 듣는 사람까지도 성정이 순화될 수 있다는 논리이다.

퇴계와 35살의 나이 차이에도 망년지교(忘年之交)를 행한 율곡(栗谷) 이이(李珣 1536~1584)도 시가에서 성정 순화를 강조하였다. 율곡은 본받을 만한 시를 엮어내면서 그 책명을 『정언묘선(精言妙選)』이라 하고 그 서문에 “시가 비록 학자의 능사(能事)는 아니지만, 이 또한 성정(性情)을 읊으며 청화(淸和)한 마음에 통하고 사무치게 하여 흥중의 더러운 찌꺼기를 씻어냄은 존심성찰(存心省察)에 한 가지 도움이 되는 것이니, 어찌 아로새기고 그려내고 수놓고 꾸미고 하여 방탕한 마음에 정을 옮겨서 지을 것이겠는가?”²⁹⁾라고 하여, 퇴계와 마찬가지로 시가 성정 순화에 이바지함을 주장하였다. 오늘날 노랫말을 만드는 사람들은 새겨두어야 할 말이다.

이안도(李安道 1541~1584)는 퇴계의 손자이다. 손자에게 당부한 예(禮)에 대해서 살펴보자. 8대 가치 중 효 못지않게 우선시해야 할 것이 예이기 때문이다.

어제 모든 예는 어떻게 하였느냐? “공경히 너의 상(相)을 맞이하여 우리 집 종사(宗事)를 잊되 힘써 공경으로 거느리어 선비(先妣)를 이을지니, 너는 떳떳함을 지니라.’ 하니, 대답하기를, ‘오직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할까 두려울 뿐, 감히 그 명을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말은 초례사(醮禮辭)이다. 너도 들어서 아는 바이니, 천번 만번 경계하여라. 무릇 부부란 인륜의 시작

29) 李珣, 「精言妙選序」, “詩雖非學者能事, 亦所以吟詠性情, 宣暢淸和, 以滌胸中之滓穢, 則亦存省之一助, 豈爲雕繪繡藻, 移情蕩心而設哉.”

이고 만복의 근원이니, 아무리 지극히 친하고 지극히 가까워도 또한 지극히 바르고 지극히 삼가야 하는 자리이다. 그러므로 “군자의 도는 부부에서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예우하고 공경하는 것은 온통 잊어버리고 다짜고짜 친압하여 마침내 업신여기고 능멸하여 못할 것이 없는 데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모두가 서로 손님같이 공경하지 않는 데서 나오는 것이다. 이 때문에 그 집안을 바르게 하려면 마땅히 그 시작을 삼가야 하는 것이니, 천 번 만 번 경계하여라.³⁰⁾

손자 안도에게 주는 글로, 부부간의 예를 언급하였다. 혼례식 때 행한 말을 떠올리게 하면서 부부 간의 지극한 예를 잊지 말고 행할 것을 권장하였다. 부부의 출발은 인륜의 시작이기 때문에 서로 손님처럼 공경할 것을 당부하였다. 그래야 집안도 순리대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배우자에 대한 존중을 어떻게 하면 되는가를 퇴계는 잘 보여주었다. 요즘 부부 간의 예우는 고사하고, 작은 잘못에도 서로 참지 못하고 부부의 인연을 끊어, ‘부부 싸움은 칼로 물 베기’라 했던 선인들의 말씀이 퇴색되고 있다. 부부의 갈등이 있기 전에 퇴계가 말씀한 ‘친압하여 능멸할 것이 아니라 서로 손님처럼 공경하여 존중해’주면, 혹시 크고 작은 잘못이 있더라도 그 잘못은 칼로 물 베기처럼 묵인되고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율곡은 『격몽요결(擊蒙要訣)』에서 예(禮)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예(禮)가 아니면 보지 말며, 예가 아니면 듣지 말며, 예가 아니면 말하지

30) 『退溪先生文集』 제40권 書6 「與安道孫」, “昨日凡禮, 何以爲之. 敬迎爾相, 承我宗事, 助率以敬, 先妣之嗣, 若則有常. 對曰, 唯恐不堪, 唯敢忘命, 右醮禮之辭. 汝所聞知, 千萬戒之. 大抵夫婦, 人倫之始, 萬福之原, 雖至親至密, 而亦至正至謹之地. 故曰, 君子之道, 造端乎夫婦. 世人都忘禮敬, 遽相狎昵, 遂致侮慢凌蔑, 無所不至者, 皆生於不相賓敬之故. 是以, 欲正其家, 當謹其始, 千萬戒之.”

말며,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는 네 가지 조목은 몸을 수양하는 요점이다. 예와 예가 아닌 것을 처음 배우는 이가 분별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이치를 궁구하여 이것을 밝혀서 다만 이미 아는 부분을 힘써 실천한다면 생 각함이 반을 넘을 것이다.(깨달은 바가 이미 많을 것이다.)³¹⁾

인용문의 내용은 『논어』 「안연(顔淵)」편 ‘극기(克己)’장과 『소학집주(小學集註)』 「경신(敬身)」³⁾에 나오는 것으로, 율곡도 예로써 자기 몸을 갈고 닦으라고 하였다. 학문의 태도도 “학문하는 것은 일상적으로 행하는 일 속에 있으니, 만약 평소 생활할 때에 거처함을 공손히 하고, 일을 집행하기를 공경히 하고, 남과 함께 할 때 진실하면, 이것을 이룸하여 학문이라 하는 것”³²⁾이라고 하여, 평상시 생활 속에서 남들에게 공손하고 공경하며 진실로 대하면 그것이 학문인 것이다. 타인에 대한 존중과 배려 그리고 어떻게 소통해야 하는가를 잘 보여준다. 일상생활에서 “의복은 화려하거나 사치스러움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추위를 막을 정도면 그만이요, 음식은 달고 맛있기를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굶주림을 면할 정도면 그만이요, 거처는 편안함을 추구해서는 아니 되고 병들지 않을 정도면 그만이다.”³³⁾라고 하여, 최소한의 의식주면 만족한 것이다. 오직 힘써야 할 것은 학문하는 자세와 수양하는 방법이라고 하였다. 그러면 사욕을 이겨 천리에 부합할 수 있다고도 하였다. 이는 자기 마음에 나쁜 생각이 싹트면 일체 끊어버려야 의리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이

31) 『擊蒙要訣』, 「持身」章 第三 “非禮勿視, 非禮勿聽, 非禮勿言, 非禮勿動 四者は修身之要也라. 禮與非禮를 初學이 難辨이니 必須窮理而明之하여 但於已知處에 力行之면 則思過半矣리라.”

32) 위의 책 “爲學이 在於日用行事之間하니 若於平居에 居處恭하며 執事敬하며 與人忠이면 則是名爲學이라.”

33) 위의 책 “衣服은 不可華侈라 禦寒而已요, 飲食은 不可甘美라 救飢而已요, 居處는 不可安泰라 不病而已니라.”

다. 말이 많고 생각이 많은 것은 수양에 해가 됨으로 일이 없으면 고요히 앉아서 마음을 보전하고 사람을 만날 때는 마땅히 말을 가려서 간략히 하고 신중히 하여, 때에 맞은 뒤에 말하면 간략하지 않을 수 없어도에 가깝게 된다고 하였다. 율곡 역시 다른 사람과 만날 때에 어떻게 소통할 것인가를 알려주고 있는데, 배려와 존중이었다.

율곡은 『격몽요결』에서 형제애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

형제는 부모가 남겨주신 몸을 함께 받아서 나와 더불어 한 몸과 같으니, 형제를 보기를 마땅히 저와 나의 구분이 없게 하여, 음식과 의복의 있고 없음을 모두 마땅히 같이 해야 한다. 가령 형은 굶주리는데 아우는 배부르고, 아우는 추운데 형은 따뜻하다면, 이는 한 몸 가운데에 지체가 어떤 것은 병 들고 어떤 것은 건강한 것과 같으니, 몸과 마음이 어찌 한쪽만 편안할 수 있겠는가? 요즘 사람들이 형제간에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은 모두 부모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어찌 그 부모의 자식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형제가 만일 좋지 못한 행실을 저지르면 마땅히 정성을 쌓아 충고해서, 점차 도리로써 깨우쳐 감동하여 깨닫게 하기를 기억할 것이요, 갑자기 노여운 낯빛과 거슬리는 말을 하여 그 화합함을 잃어서는 안 된다.³⁴⁾

형제의 몸은 부모의 피와 살을 받아 태어났기에, 그 서로 대하기를 마치 부모를 대하듯이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형은 부자고 동생이 굶주리며 그것도 안 될 일이며, 한쪽이 병 들고 아프면 마치 나의 몸이

34) 『擊蒙要訣』「居家」章 第八. “兄弟는 同受父母遺體하여 與我如一身하니 視之를 當 無彼我之間하여 飲食衣服有無를 皆當共之니라. 設使兄飢而弟飽하고 弟寒而兄溫 이면 則是一身之中에 肢體或病或健也니 身心이 豈得偏安乎아. 今人이 兄弟不相 愛者는 皆緣不愛父母故也라. 若有愛父母之心이면 則豈可不愛父母之子乎아. 兄弟 若有不善之行이면 則當積誠忠諫하여 漸喻以理하여 期於感悟요, 不可遽加厲色拂 言하여 以失其和也니라.”

아픈 것처럼 생각하여 형제간의 정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형제 중에 어느 누가 잘못을 범하면 정성을 쌓아 충간하되 잘 듣지 않으면 점차적으로 깨우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말을 잘 듣지 않는다고 갑자기 엄한 얼굴과 험한 말로 위협한다면 오히려 형제의 의리를 깰 수도 있다는 것이다. 율곡은 정과 충간으로 형제간의 예가 어떠한지 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질 우선주의가 도를 넘어 이익이 동기간의 우애를 해친 지 오래 된 지금, 율곡의 우애론이 왜 필요한가는 분명하다.

그리고 어른을 어떻게 공경해야 하는가도 설명하였다.

무릇 사람을 대할 때에는 마땅히 온화하고 공경함에 힘써야 하니, 나보다 나이가 갑절이 많으면 아버지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10년이 많으면 형을 섬기는 도리로 섬기고, 5년이 많으면 또한 약간 공경을 더할 것이니, 가장 해서는 안 될 것은 배운 것을 믿고 스스로 고상한 체하며 기운을 숭상하여 남을 업신여기는 일이다.³⁵⁾

위의 글은 남을 대하는 예(禮)로, 『소학집주』 「명륜(明倫)」 72에 나오는 내용과 유사하다. 그리고 ‘자기 학식을 믿고 스스로 높여서 기고만장하여 남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 역시 남을 존중하는 태도로 배려의 미덕이 반영되었다.

퇴계와 동갑인 남명(南冥) 조식(曹植 1501~1572)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남명은 「여오어사서(與吳御史書)」에서 “그대는 요즘의 선비들을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손으로 물 뿌리고 비질하는 절도도 모르면서 입으

35) 『擊蒙要訣』 「接人」章 第九. “凡接人 當務和敬 即年長以倍어든 則父事之 하고 十年以長어든 則兄事之 하고 五年以長어든 亦稍加敬 即最不可恃學自高, 尙氣陵人也니라.”

로 천상의 이치를 말하는데, 그들의 행실을 공평히 살펴보면 도리어 무지한 사람만도 못합니다.”³⁶⁾라고 했다. 이는 퇴계와 주고받은 편지글에도 보이는 내용으로, 요즘 선비들이 학문의 기초적인 것을 소홀히 하고 있음을 질타한 것이다. 지금의 선비들은 자신의 능력보다 배움의 등급을 뛰어넘어, 입으로만 천리를 말하고 실천력이 없는 학문을 하기에, 오히려 무지한 사람보다도 못한 경우라 힐책하면서,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맞게 공부해야 할 것임을 역설하였다.

남명이 행한 인인시교의 교육법은 『논어』에서 살펴본 공자의 교육법이다. 공자가 제자들의 능력과 그들이 처한 처지를 배려하여 그들에게 맞는 가르침을 내렸던 것처럼, 조선의 유자 남명도 제자들의 능력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교육법으로 가르침을 내렸던 것이다. 이런 가르침은 제자들의 인성교육에까지 영향을 미쳐 훗날 그들이 조선 사회의 거유(巨儒)가 되는 초석(礎石)이 되었던 것이다.

조선 후기 유자(儒者) 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 1762~1835)이 강진 유배지에서 두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 글 중에는 두 아들이 앞으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당부하는 내용이 있다.

보내준 편지는 자세히 보았다. 천하에는 두 가지 큰 기준[大衡]이 있는데 하나는 시비(是非)의 기준이요, 다른 하나는 이해(利害)의 기준이다. 이 두 가지 큰 기준에서 네 종류의 큰 등급이 생기는 것이다. 옳은 것을 지켜서 이익 얻는 것이 가장 높은 등급이요, 그 다음은 옳은 것을 지켜서 해를 받는 것이며, 그 다음은 나쁜 것을 좇아 이익을 얻는 것이며, 가장 낮은 등

36) 『南冥集』, 卷二, 「與吳御史書」, 『韓國文集叢刊』 31, 484면. “君不察時士耶. 手不知洒掃之節, 而口談天上之理, 夷考其行, 則反不如無知之人.”

급은 나쁜 것을 좇아서 해를 받는 것이다. 너는 지금 나로 하여금 필천(筆泉)에게 편지를 보내어 항복을 빌라하고, 또 강가(姜哥)와 이가(李哥)에게 애걸하라고 하니, 이는 세 번째 등급을 구하고자 하는 것이나 끝내는 네 번째 등급으로 떨어지고 말 것이니, 내가 무엇 때문에 그런 짓을 하겠느냐?³⁷⁾

위의 편지는 아들로부터 편지를 받고 난 후 다산(茶山)께서 답장한 내용이다. 다산이 55세 되던 1816년 5월의 편지이다. 세상에는 큰 기준이 두 가지가 있는데, 시비의 기준과 이해의 기준으로 밝히면서 네 등급이 있다고 하였다. 아들의 편지글에서는 아버지를 포함한 이들에게 탄원하는 글을 보내라고 하였던 것 같다. 필천은 다산의 장인인 홍화보(洪和輔)의 종제(從弟)로 홍의호(洪義浩)의 호이다. 강가(姜哥)는 강준흠(姜浚欽)을 가리키며, 이가(李哥)는 이기경(李基慶)이다. 이들은 모두 다산을 포함하였다. 그런데 다산은 천하의 기준에 어긋날 뿐만 아니라 결국은 나쁜 것을 좇다 해를 입게 된다고 하였다. 불의에 굴복하지 않는 다산의 정직함이 느껴지는 글이다. 이때는 유배 생활 15년 차이다. 효제(孝悌)에 대해서도 언급한 곳이 있다.

지금 너희 종형제(從兄弟)가 5~6명이나 되니, 내가 만일 하늘의 은혜를 입어 살아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오직 5~6명을 가르치고 훈계해서 모두 효제를 근본으로 삼게 하고, 또 경사(經史)와 예악(禮樂), 병농(兵農)과 의약(醫藥)의 이치를 꿰뚫게 하여 4~5년이 지나지 않아 찬란한 문채를 볼 만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집안이 비록 폐족(廢族)은 면할 수 없더라도 시·예의 가르침은 거의 징험할 수 있을 것이니, 이 점이 내가 밤낮으

37) 『茶山詩文集』 제21권 書, 「答淵兒」 丙子五月初三日, “來紙詳見之矣. 天下有兩大衡, 一是非之衡, 一利害之衡也. 於此兩大衡, 生出四大級. 凡守是而獲利者太上也, 其次守是而取害也, 其次趨非而獲利也, 最下者趨非而取害也. 今使我移書乞降於筆泉, 又搖尾乞憐於姜李, 是欲求第三級, 而畢竟落下於第四級, 吾何以爲之哉.”

로 북쪽 하늘을 바라보며 만드시 일찍 돌아가고자 하는 이유이다. 이것이 나의 큰 계획이나, 너희들이 먼저 백부나 숙부 섬기기를 아버지 섬기는 것처럼 하는 법도를 세운 뒤에야 六과 七도 나를 제 아버지처럼 섬겨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만일 너희들이 좋지 못한 규모를 세워서 마음속에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이지, 백부나 숙부는 종족 중에 조금 가까운 사람일 뿐이다.’라는 생각을 갖는다면, 그들은 경사나 예악도 기꺼이 배우러 오지 않을 터인데, 하물며 효제의 행실을 가르칠 수 있겠느냐? 바라노니, 너희들은 나의 큰 계획을 돌아보고 백부 섬기기를 아버지처럼 섬겨서 육과 칠 등 여러 아이의 모범이 되도록 하여라. 이 계획이 매우 크니, 너희들이 비록 백 번 천 번하고 싶지 않다 하더라도 애써 내 말을 따라서 나의 마음에 부응하도록 하여라.³⁸⁾

『논어』에서 유약(有若)이 말한 ‘그 사람됨이 효성스럽고 공순하면 윗 사람을 범하는 자가 더물다’고 한 것처럼, 다산도 두 아들에게 큰아버지와 작은아버지에게 효제를 다 할 것을 당부하였다. 언젠가는 유배 생활에서 풀려 고향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조카들에게 경사와 예악 그리고 병농과 의약을 가르치기 위한 방편이기는 하지만, 집안 어른을 아버지 섬기듯이 할 것을 당부하였다. 여기서 말한 육과 칠은 다산의 조카들이다. 다산의 중형 정약전의 아들인 학진(學進)의 아명이 봉육이며, 백형 정약현의 아들인 학순(學淳)의 아명이 칠복이기 때문이다.

38) 『茶山詩文集』 제21권 書, 『答淵兒』 “今汝從昆弟猶爲五六人, 吾若得荷天恩, 生還故土, 則唯五六人是教是訓, 皆使之本之孝弟, 而又能貫穿經史禮樂兵農醫藥之理, 庶幾不出四五年, 斐然可觀. 雖不免爲廢族, 而詩禮之教, 庶乎其有徵, 此吾所以晨夕北望, 必欲其早還者也. 此吾大計之所存, 然使汝輩先立事伯叔父如父之法, 然後六與七也, 始知事我如父也, 苟汝輩立得不好底規模, 心中以爲吾父爲父, 伯叔父是宗族之稍近者云爾, 則是經史禮樂, 尙不肯來受, 況可以教之以孝弟之行乎. 望汝顧吾大計所存, 事伯父如父, 以爲六七諸哥之模楷坯範也, 茲計甚大, 汝雖有千百般不肯, 勉而從之, 以副此心.”

조선 중기 퇴계는 타고난 착한 성품을 지니기 위해 학동들에게 성정 순화에 필요한 노래를 짓기도 하고,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지간에도 예를 지킬 것을 당부하였다. 남명은 사람의 능력에 맞게 학문을 가르치는 인인시교의 교육법으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율곡은 예를 생활의 중심에 두어 타인에게 공손하고 공경할 것을 당부하였다. 조선 후기 다산의 글에도 공자 이래로 이어져 온 정직과 효에 대한 것이 전해졌다. 이처럼 조선 시대 유자는 전통적으로 계승되어온 효와 예 그리고 정직과 배려·소통 등을 중시하면서 계승하였다. 공자시대의 유학이 면면히 이어져 조선시대를 관통하여 효·예·정직·배려·소통 등으로 지금까지 이어져 왔듯이, 21세기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유효할 것이다. 2000여 년이 흐른 뒤 조선시대 유자들의 삶을 관통했듯이, 미래의 삶에도 핵심적인 가치관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본연의 가치인 인성을 이루는 효·예·정직·배려·소통 등의 핵심가치는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면서 인간다움을 누리게 하는 근본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삶의 방식이 예전과는 다른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간다움을 유지시킬 인성은 조선시대 유자들이 공자 시대의 가치관을 계승했듯이 미래 인류의 삶에도 필요한 것이다. 그래야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인간미가 풍기는 삶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것이 변한 오늘날 성현과 현자들이 중시했던 인성과 조선 유자들이 계승 발전시켜 온 가치관을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수용하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

『삼국유사』 「손순매아(孫順埋兒)」에는 어머니 봉양을 위해 손자를 땅에 묻고자 했던 이야기가 있다. “손순에게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늘 어머니 음식을 빼앗아 먹었다. 그래서 아내와 의논하여 ‘아이를 땅에

묻고 어머니의 배를 부르게 해 드리는 것이 맞다'라고 하여, 아이를 묻으려 취산 북쪽으로 가서 땅을 파니 석종(石鐘)이 나왔다. 특이한 석종으로 인해 아이를 땅에 묻지 않고 집으로 데리고 온 후 그 석종을 치니 그 소리가 대궐까지 들렸고, 그로 인해 부자가 되었다.”³⁹⁾는 내용이다.

「손순매아」에 나오는 손순의 아름다운 생각은 이어받아야 하겠지만, 그것을 실천할 수는 없다. 아들도 이미 하나의 인격체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 활용할까?

인간의 행위에는 목적과 수단, 결과라는 여러 측면이 얽혀 있다. 목적이 좋고 방법이 올바르며 결과가 좋은 행위를 우리는 훌륭한 일로 평가한다. 문제는 그 중 어느 하나가 좋지 못한 경우다. 특히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바르지 않은 경우가 문제 시 된다.

손순 부부는 어머니에 대한 효도로 어린 아들을 땅에 묻으려 했다. 이는 정당하지 못한 행위이다. 물론, 그 당시에는 그 같은 효가 당연시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현대적 관점에서 볼 때, 아무리 어머니에 대한 효도라고는 해도, 그 아이는 하나의 생명체로서 인간 그 자체만으로도 존귀하고 존중해 주어야 할 대상이다. 결과적으로 행복한 결말이 되었지만, 효를 위한 그와 같은 행위는 한 인간의 생명을 무시한 처사로 분

39) 『三國遺事』 5卷, 9.孝善, 「孫順埋兒」 興德王代

“孫順者[古今(本)作孫舜], 牟梁里人, 父鶴山. 父沒, 與妻同但傳(作傭)人家, 得米穀養老孃, 孃名運烏. 順有小兒, 每奪孃食. 順難之, 謂其妻曰, “兒可得, 母難再求, 而奪其食, 母飢何甚! 且埋此兒以圖母腹之盈.” 乃負兒歸醉山[山在牟梁西北]北郊, 掘地忽得石鍾甚奇. 夫婦驚怪, 乍懸林木上, 試擊之, 春容可愛. 妻曰, “得異物, 殆兒之福, 不可埋也.” 夫亦以爲然, 乃負兒與鍾而還家, 懸鍾於梁扣之, 聲聞于闕. 興德王聞之, 謂左右曰, “西郊有異鍾聲, 清遠不類, 速檢之.” 王人來檢其家, 具事奏王, 王曰, “昔郭巨瘞子, 天賜金釜, 今孫順埋兒, 地湧石鍾. 前孝後孝, 覆載同鑑.” 乃賜屋一區, 歲給粳五十碩, 以尚純孝馬(焉). 順捨舊居爲寺, 號弘孝寺, 安置石鍾. 眞聖王代, 百濟橫賊入其里, 鍾亡寺存. 其得鍾之地, 名完乎坪, 今詔云枝良坪.”

명 잘못된 것이다. 만약 아들을 묻고 난 후, 그 사실을 알게 된 할머니의 심정을 어떻게 헤아릴 것인가?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알지 못한 근시안적 행위인 것이다.

위의 「손순매아」 이야기처럼, 목적만 좋으면 수단썩이야 조금 틀려도 된다는 생각은 가치관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손순 부부의 비윤리적인 행위가 어떤 이유에서든 정당화된다면, 세상에 용인되지 못할 행위가 거의 없을 것이다. 어떤 행위든 다 그럴 듯한 목적을 붙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손순 부부의 행위는 정당하지 못하다. 그들이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사회의 도덕적 규범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선의 해법을 찾는 일이다.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비슷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경우에 해야 할 일이기도 하다. 그러면 어린 자녀들을 자신의 소유물인 양 확대하거나 심지어 동반 자살하는 경우도 사라질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참된 효를 행한다면 어머니에게는 성의껏 음식을 올리고 어린 자녀에게는 티일러 할머니께서 음식을 편안히 먹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했다. 그리고 부부는 어떻게 해야 할까? 우선 주변에 도움을 청하면서 일할 곳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할 것이다. 『심청전』의 심청이와 같은 효도 지금의 시대에는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서에서 제시한 효제의 방법도 아니다.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더욱 목적만 앞세워 과정을 무시할 수 있다. 돈만 벌면 되기 때문이다. 이런 시대일수록 과정과 수단을 중시하는 인성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효를 중시했던 그 정신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맹자』 「이루」장(상)의 증석·증삼(증자)·증원의 3대에 걸친 효 이야기에서 정신적 효도와 물질적 효도를 언급한 부분이 있다. 증자는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 뜻을 받든 양지자(養志者)를 행했다. 증자처럼 부

모님의 큰 뜻을 알아차리고 그 뜻을 받들어 모시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효일 것이다. 하지만 물질주의로 팽배해진 배금주의가 정신적인 효는 고사하고 물질적인 효를 행한 증원의 양구체자(養口體者)마저도 행하기 어려운 시대이다. 물질적 가치를 우선시하는 시대일수록 선현들이 행했던 효제의 뜻을 마음에 새기면서 부모님과 이웃 어른들에게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효도이며 공경인지,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으로서의 바람직한 삶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기름진 음식과 값비싼 물건은 아니라도 정성을 다해 진심으로 공경하고 봉양한다면, 그것이 선현들과 유자들이 말한 진정한 효이고 예절이며 배려고 소통이기 때문이다. 『논어』, 「이인」편, 「기간」장에는 부모님께 간하는 내용으로,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모님을 섬기되, 은근히 간하나니, 제 뜻이 따르지 않을 것을 보여 드리고서도 더욱 공경하여(부모의 뜻을) 어기지 않으며, 수고스럽더라도 원망하지 않느니라.’”라고 하셨다.”⁴⁰⁾는 구절이 있다. 자식이 간하는 말이 부모님께서 받아들여지지 아니 하거든,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효성스런 마음을 일으켜서(부모님께서) 기뻐하시면 다시 간하면 된다는 논리이다. 자식이 바른 말을 하여 부모님께서 일시적으로 노여워하시고 기뻐하시지 않아서 회초리질을 하심에 피를 흘리더라도 감히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않고서, 공경하는 마음을 일으키고 효성스런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이다. 공자와 맹자의 말씀이 지금도 유효하다. 물질 우선주의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할 열쇠이기 때문이다. 자식은 부모를 공경으로 봉양하고 부모는 자식을 사랑으로 부양하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자연적으로 사라질 것이

40) 『論語』, 「里仁」篇, 「幾諫」章. “子曰, 事父母하되 幾諫이니 見志不從하고도 又敬不違하며 勞而不怨이니라.”

다. 돈 때문에, 아니면 의견 충돌로 부모가 또는 자식이 서로를 고발 고소하는 불미스러운 사건은 사라질 것이다. 속도와 편리함 그리고 물질적 풍요만을 앞세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왜 전통적인 가치관이 필요한 것인지 더욱 분명해진다.

IV. 휴먼터치(Human Touch)가 필요한 시대 감성을 갖춘 인간상

전문가들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개인주의 성향을 지닌 소비자들이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언택트(untact) 기술이 발전할 것으로 예견하였다. 언택트 시대의 산물로 인공 로봇이 여러 형태로 등장하였다. 미국에서 인공지능(AI)의 첫 시도의 하나로 로봇팔(manipulator)을 이용한 커피판매점인 카페가 등장하였다. 카페를 개업한 후 처음에는 손님들이 문전성시를 이루어 호기심을 드러내었지만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인공지능의 로봇팔(manipulator)을 지닌 바리스타가 누리던 인기도 줄어들었다. 기계적으로 커피를 내리고 주문받아 커피만 배달하는 로봇팔이 아니라, 진실의 순간은 커피를 내리면서 반갑게 손님을 맞이하고 정겹게 커피 잔을 건네는 바리스타의 손길 곧 휴먼터치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이다. 핵심 품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휴먼터치 곧 인간미라는 것이다. 이는 한편으로 AI 기술의 한계를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편리함과 남들로부터 방해받지 않는 삶인 개인주의를 추구하면서도 인간적 공감과 스킨십에 대한 욕망은 더욱 더 강렬해졌다는 것이다. 기술이 발달하면 할수록 AI는 인간의 삶에서 주가 아닌 보완적인 역할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휴먼터치(Human Touch) 곧 인간다움을 지닌 감성적인 인간상이 더욱 요

구되는 것이다.

현대는 언택트 곧 사람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물건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받는 시대이다. 코로나19라는 시대적 환경과 개인주의 성향으로 자연스럽게 언택트 기술이 촉진될 것이다. 이런 시대적 배경으로 인공 지능인 스피커 ‘지니’가 등장해서 현대인의 벗으로 행세하기도 한다. 하지만 인공지능 스피커 ‘지니’에게 가장 많이 건네는 말은 역설적으로 “지니야 사랑해”라고 한다. 그리고 “안녕”·“뭐 해”·“고마워” 등이 뒤를 따른다⁴¹⁾고 한다. 모두 인간미가 느껴지는 감성적인 대화이다. 이런 사실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알 수 있다. 감성을 공유하고 싶은 것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사람들은 단절과 소외감으로 인간적 공감과 스킨십에 목말라 할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예견되기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삶 속에서 메인인 아닌 인간을 보조해주는 역할로 활용되어야 한다. 건강관리 앱 ‘눔 코치’도 사람 코치에 인공지능이 보조하는 방식을 택했다. 자동 응대가 가능하거나 반복적인 일은 인공지능이 하고, 사람은 각 회원에 맞춘 단기적인 목표 설정이나 다이어트 중 겪을 수 있는 감정적인 문제를 조언함으로써 심리적 안정을 꾀하고 동기부여까지 행할 수 있다고 하였다. ‘2015년부터 이런 시스템을 운영하면서 회비의 가격을 올렸으나 오히려 가입자는 늘었다’⁴²⁾고 한다. ‘눔 코치’의 사례처럼, 소비자가 구매를 결정하고 서비스의 지속적인 유지를 마음먹게 하는 진실의 순간을 만드는 강력한 동기는 사람다움 곧 휴먼터치(Human Touch)인 것이다.

41) <https://blog.naver.com/alexander6/222140882663> 접속 날짜 2020. 11. 22. <휴먼터치? 적용한 실사례 4가지>, 참조.

42) <https://blog.naver.com/alexander6/222140882663> 위의 글, 참조.

지금 인공지능이 진화를 거듭하는 동안에도 휴먼터치를 위해 은행 같은 곳은, 감성 경영을 시도하고 있다. 미국 오리건주에 위치한 움프쿠아 은행(Umpqua Bank)은, ‘은행을 호텔처럼 꾸미자.’는 “프리티쿨호텔(Pretty Cool Hotel)” 캠페인을 벌여 고객을 오랫동안 은행에 머물게 하면서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카페를 꾸미 놓거나 요가 스킨을 여는 등 다목적 문화 공간을 제공하여 사람 중심의 감성화 전략을 시도한 것이 그 예이다. 뿐만 아니라 고객이 직접 상담 직원을 선택할 수 있는 앱인 ‘움프쿠아 고투’를 만들어 휴먼터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기업들은 인간적인 소통 강화를 위해 다양한 정보를 재미있게 제공할 뿐만 아니라 음성 안내 문구에 친근한 말투로 사람의 목소리를 입혀 기술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넣기도 하였다. 그리고 내부 구성원들에게는 동료들의 따스한 스킨십을 위해 문화생활을 지원한다고 하였다. 복지시설 확충과 기념일 챙기기 등을 아울러 병행하여 내부 구성원들의 마음 챙기기에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만 보아도 인간의 손길은 여전히 중시되고 있다. 이런 손길은 인성으로부터 나올 것이다. 인성은 감성을 풍부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인성은 인간다움의 인간을 만드는 기본이기도 하다. 공자(孔子)시대로 시작하여 조선의 유자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승된 효의 가치와 예, 그리고 정직과 소통 및 배려의 소중함은 인간 본연의 가치를 지킬 수 있는 덕목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 곧 인공지능이 발전하면 할수록 우리 선인들이 중시해온 감성의 근원인 인성은 더욱 더 필요한 시대가 될 것이다. 그것이 인간다움을 지키고 유지할 수 있게 할 뿐만 아니라 정서적으로 풍요로운 미래의 삶을 보장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전개될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오히려 휴먼터치 곧 인간미 넘치는 사회가 요구될 것이다. 이런 현실적 상황을 고려하면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은 인간적인 접근이 가능한 인성과 감성을 갖춘 인재상이 필요한 것이다. 인공지능(AI)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따스함이나 세세한 헤아림을 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유구히 계승되어 온 공자 시대의 인성이 조선 유자를 거쳐 오늘날까지 계승되었듯이 미래도 인간다움을 누릴 수 있는 핵심적인 가치관으로 자리매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금 인공지능의 단순함을 극복하기 위해 기계에 사람의 숨결을 불어 넣기 위한 노력을 가하기도 하고, 인간적 소통하기 위해 인터넷상에 회사나 회사원의 다양한 정보를 수시로 불특정 다수에게 제공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내부 구성원들끼리도 서로 마음을 챙기기 위해 직원들의 기념일을 챙겨주기도 하고 동호회 모임을 행하기도 한다. 이런 것이 모두 감성 리더십이다. 이처럼 21세기는 인성과 휴먼터치가 더욱 중시되는 시대이기에, 우리는 전통적인 인성을 계승 발전 시켜 사람들이 갈구하는 인간의 손길을 느끼게 해주어야 할 것이다.

V. 결론(結論)

『논어』와 유자(儒者)의 가치관 중 인성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 본 결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여전히 인간 고유의 역량 강화가 그 답이었다. 이천여 년이 흐르면서 그 시대의 지식인들도 인성을 중시하여 인간다운 삶을 유지시켜 왔다. 공자 시대를 거쳐 조선의 유자들이 올바른 가치관 정립을 위해 인성 교육에 정성을 쏟았듯이 인공지능(AI)의 시대에도 여전히 인성은 중시될 것이다. 인간 고유의 역량인 인성이 무너지면 도덕적 가치관은 물론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도 사라져 버리기 때

문이다. 다시 말하자면 일의 우선 순위가 인성이고 그 다음이 편리함을 갖춘 물질적 풍요로움이라는 것이다. 본말이 전도되면 세상이 혼란스럽게 될 뿐이다.

조선의 유자들도 인성교육을 경서(經書)의 내용에 따르면서 시대에 맞게 수용하거나 변용하면서 실천을 통해 후학들을 가르쳤다. 조선의 유자들이 후손들이나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선대에 행했던 인성교육은 유효하다. 다만 현대적 관점에 맞게 변용하고 적용할 필요가 있다.

어머이를 위한 효와 정직함,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삶, 남의 어려운 점을 살피고 배려하면서 소통하고자 하는 삶의 태도로서의 인성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필수적인 덕목이 되어야 한다. 물질적 가치가 판단의 기준이 되고 오로지 자기중심의 이기적 합리성만을 내세우는 시대적 현실 앞에 인간의 고유 영역인 인성을 지키면서 산다는 것은 인간 존재의 근원을 확인케 하기 때문이다. 또한 점차적으로 그 중요성을 알게 하는 감성 경영과도 연결될 수 있다.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서는 감성 경영의 하나로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향하고 있다. 고객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는 고객과의 인간적 소통을 시도하고 스킨십을 강조하며 인간의 손길을 느낄 수 있게 하는 경영법이다. 이런 경영법의 원리는 우리가 전통적으로 중시해온 인성을 갖추는 것부터 시작이다.

몇 년 전 인공지능(AI)의 인기에 부응하여 미국에서는 발 빠르게 로봇 카페가 등장하여 대중들로부터 인기를 끌었던 적이 있다. 그러나 그 인기도 한순간이었다. 곧바로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고 카페도 폐업의 수순을 밟았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고객들은 기계적인 단순함과 편리함보다 인간적인 면이 그리웠던 것이다. 카페에서 고객들이 느끼고 싶었던 것은 에스프레소 머신이 커피 내리는 장면이나 사람의 팔처

럼 생긴 매니플레이터(manipulator) 로봇이 아니라 정성껏 커피를 내리는 바리스타의 손길과 그 커피를 고객께 전달하면서 미소를 띤 채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을 건네는 매니저의 휴먼터치가 그리웠던 것이다. 이런 사실로 유추해 보면, 기술의 첨단 시대로 접어들수록 인간은 한층 더 인간다움을 그리워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도 인성을 지닌 사람일 것이다. 인성은 감성을 풍부하게 해 줄 것이기 때문이다.

강상(綱常)의 도(道)가 땅에 떨어진 오늘날 어떻게 하면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필요한 인성을 함양할 수 있게 하며 바른 인성을 지닌 사회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할 것인가를 고민하고 그 방향을 살피면서 다가올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인간상을 제시해 보았다. 그 인간상은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할수록 더욱 그리워지게 되는 인간미를 지닌 인재로, 인간 고유 영역인 인성과 감성을 지닌 사람일 것이다. 그 인성은 공자가 주장하고 유자들이 발전시키고 계승하고자 했던 인간 본연의 가치였던 인간다움으로, 효와 정직, 배려와 소통 등 인성과 감성에 부흥하는 것들이었다. 감성은 남을 배려하면서 타인의 기쁨과 슬픔에 공감할 수 있는 마음 씀씀이를 지닌 사람일 것이다. 기술과 가치가 함께 발전할 21세기는 더욱 더 인간 중심의 가치관에 초점을 맞춰져야 할 것이다. 모든 것이 사람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차 산업혁명 시대에도 인성과 감성을 갖춘 인간상은 더욱 요망되는 것이다.

【참고문헌】

〈基本資料〉

宋刊本十三經注疏附校勘記 『詩經』, 藝文印書館, 1981.

” 『周易』 ”

” 『禮記』 ”

” 『春秋左傳』 ”

” 『論語』 ”

『孟子』·『大學·中庸』, 景文社, 1979.

周敦頤, 『周子全書』, 商務印書館, 1978.

程顥·程頤, 『二程全書』, 景文社, 1981.

朱熹, 『朱子大全』, 曹龍承 影印本, 1978.

朱熹, 『朱子語類』, 啓明大 圖書館 所藏本.

『古文眞寶』, 景仁文化社, 1983.

成百曉 譯註, 『論語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0.

成百曉 譯註, 『孟子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1.

成百曉 譯註, 『大學·中庸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3.

成百曉 譯註, 『小學集註』, 傳統文化研究會, 1994.

정요일, 『논어강의』 天·地·人, 새문사, 2009. 2010.

李滉, 『退溪全書』,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58.

曹植, 『南冥集』, 亞細亞文化社, 1981.

李珣, 『栗谷全書』, 成均館大 大東文化研究院, 1958.

丁若鏞, 『與猶堂全書』, 서울大 古典刊行會, 1966.

〈論著〉

강민경, 「대학 교양 수업에서의 인성교육 사례」.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3, pp.111-119.

金東敏, 「논어에 기반한 인성교육 모델의 이론적 기초」, 유교사상문화연구71, 2018, pp.81-116.

- 김영준·강경숙, 「대학 인성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과정 개선 기반 구축방안」, *교사교육연구* 57, 2018, pp.411-428.
- 김은주, 「대학생의 인성교육을 위한 교양교육과정 개발 -E대학을 중심으로」,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Vol.9, No.5, May, 2019, pp.247-258.
- 김충일·김호연,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인간상과 누리과정 목표와의 연관성」, 『열린교육연구』 제26권 제1호, 2018, pp.79-94.
- 박현희,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 활용 강좌의 운영 특성과 효과 -서울대 <독서세미나 -고전에 길을 묻다> 교과목을 중심으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9, pp.281-299.
- 성명희·김은주, 「대학생을 위한 인성교육과정 개발」,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7, pp.429-436.
- 성태제, 「제4차 산업혁명시대의 인간상과 교육의 방향 및 제언」, 『교육학연구』 제55권 제2호, 2017, pp.1-21.
- 신창호, 「인성교육과 교육학적 전망 -교육의 본질적 개념을 고려하여」, *한국문화융합학회 전국학술대회*, 2019, pp.422-270.
- 손윤락, 「대학 교양과목으로서의 시민 인성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8, pp.174-178.
- 안순태, 「대학 교양한문 교육과 인성교육 -論語 세미나 수업 모형을 중심으로」, *韓國漢文教育學會* 48호, *漢文教育研究*, 2017, pp.95-120.
- 안현효, 「고전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pp.143-158.
- 윤옥한, 「최근 인성교육의 연구동향과 인성교육 방향」, *한국교양교육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6, pp.129-138.
- 이은아, 「인성교육의 대안과 방향」, *사회과학연구*, 26(4), 2015, pp.238-255.
- 이하준, 「인성함양을 위한 고전교육의 방향 탐색」, *교양교육연구* 8(5), 2014, pp.423-448.
- 이하준·이서인, 「인문학을 활용한 대학의 인성교육과정 분석과 개선방향」, *교양교육연구*, 9(4), 2015, pp.45-72.
- 정미선·정영애·김민준, 「외국의 인성교육 고찰을 통한 한국의 인성교육 방향」, *교정상담연구* 제2권 제2호, 2017, pp.95-128.
- 조 벽, 『인성이 실력이다』, 해냄 2019.

- 지희진, 「대학 교양 인성 교육에 대한 대학생 인식 탐색」. 교양교육연구7(5), 2013, pp.433-466.
- 차봉준, 「대학 인성교육의 방향 설정과 활성화를 위한 시론 -S대학 인성교과목 개설을 중심으로」, 대동철학72, 2015, pp.23-45.
- 홍경남, 「대학 인성 교육과 도덕윤리 교육」. 교양교육연구, 11(6), 2017, pp.507-528.
- 함정현 · 민정현, 「대학 교양교육에서 고전 활용에 대한 연구」(한국 · 일본 · 미국 대학의 교양 고전 교육 사례 비교), 동방학30, 2014, pp.483-509.
- <https://blog.naver.com/alexander6/222140882663> 접속 날짜 2020. 11. 22. <휴먼터치? 적용한 실사례 4가지> 참조.

Abstract

A Image of the Human Being Necessary for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Yun, In-hyun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s the era that can change the world with devices humans have not ever experienced, as machine learning, deep learning, and AI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transform the world. Thus, AI will predict the future as it evolves, and will continue to learn by itself. Existing lifestyles will be externally changed in the future, and the untact lifestyle will be more common than face-to-face life and it will make person-to-person interactions further disconnected.

What is the image of the human that is necessary during the era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needs an image of a human being that can manipulate information appliances or mobile devices skillfully and acquires and adapts to new skills without resistance. However, we can speculate what will be necessary in the future when considering the weaknesses in the early stages of AI. In the era of materialism, human virtues are worthlessly discarded, which leads to the degradation of human values. Therefore, we need an image of a human being that creates a humanity where human nature is recovered. As there are no children without parents, we should not have communication problems and always be honest, extending every courtesy by recovering good nature through filial duty (孝) remaining a permanent truth.

Additionally, emotional human-touch will be paradoxically missed by people during the era of AI that is equipped with convenience and rapidity. The most one that we say to AI 'Genie' as a product of untact era is 'Genie, I love you', and we can guess what people may want from this. Work efficiency is improved by celebrating various anniversaries through

emotional management in the workplace that is perceived as a base. As AI improves, humans will continue to thirst for sympathy and physical contact. Thus, a new image of a human being is necessary in the era of 4th industrial resolution, and particularly one that is warm-hearted and one with humanity.

Key Words : Image of human being dur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I, Untact, Human value, Humanity, Sensibility

윤인현

인하대학교 프런티어학부대학(겸 항공우주공학과)조교수

전자우편 : yunih@inha.ac.kr

이 논문은 2021년 1월 31일 투고되어
2021년 3월 14일까지 심사 완료하여
2021년 3월 26일 게재 확정됨.